



보도일시 (인터넷) 2023. 9. 27.(수) 06:00,
(지면) 2023. 9. 27.(수) 석간

배포 2023. 9. 26.(화) 14:00

10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해양유물, 무인도서 선정

- 이달의 수산물로 삼치·대하를, 어촌여행지로 둔장·룡대미마을을, 해양생물로 해마를,
등대로 흑산도항방파제등대를, 해양유물로 해도첩을, 무인도서로 상백도를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삼치, 대하

	
삼치	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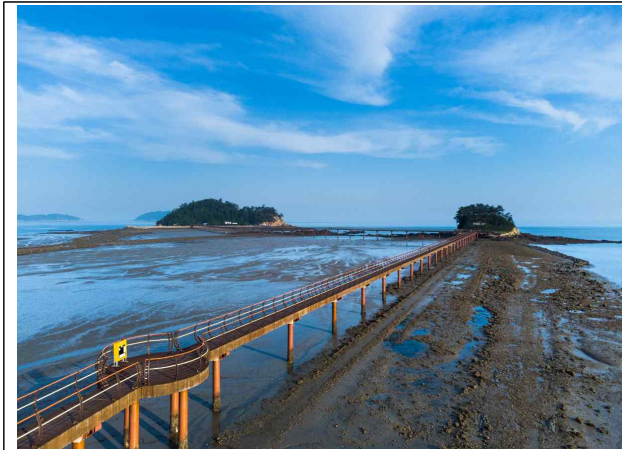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천고마비의 계절, 10월 이달의 수산물로 삼치와 대하를 선정하였다.

삼치는 고등어, 방어와 같이 대표적인 등푸른생선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DHA와 EPA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자산어보>에는 다른 물고기보다 3배 빠르고, 3배가 크며, 3가지 맛이 난다고 하여 ‘삼치’라고 불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크기가 클수록 맛이 좋은 삼치는 살이 부드럽고 비린내가 적어 어떤 요리법과도 잘 어울린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대하는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초가을이 제철이며, 회로 먹으면 달콤한 감칠맛을 더 느낄 수 있다. 대하는 흰다리새우와 생김새가 비슷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꼬리가 녹색을 띠고, 수염이 흰다리새우보다 길다. 또한, 대하는 성질이 급해 잡히면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대하는 보기가 어렵다.

이달의 수산물을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https://blog.naver.com/korfish01?proxyRefer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이달의 어촌 여행지 - 전남 신안군 둔장마을, 경남 고성군 룡대미마을



둔장마을 무한의 다리



룡대미마을 앞 대보교 및 보리섬

해양수산부는 10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시원한 가을바람, 푸른 바다와 함께 섬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 둔장마을과 경상남도 고성군 룡대미마을을 선정하였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둔장어촌체험휴양마을은 어촌체험과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해안 산책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산책로와 공원이 있는 둔장 해변에서 무인도인 할미도를 연결하는 ‘무한의 다리’를 건너면서 산책을 즐기기도 좋고,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에서는 백합캐기체험 등을 해볼 수 있다. 여행 후에는 파란 지붕의 어촌계 숙소에서 붉게 물든 해넘이를 보며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해보자.

경상남도 고성군 룡대미어촌체험휴양마을에는 푸른 소나무 숲과 남해가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산책할 수 있는 보리섬 생태탐방로가 있다. 마을 앞 주황색의 대보교를 건너면 만나게 되는 보리섬은 30분 정도면 다 둘러볼 수 있고, 무지개색 계단을 내려가면 갯벌체험도 가능해 동죽조개, 바지락 등을 잡으며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주요 먹거리로는 왕새우, 가리비, 갯장어가 있으며,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숙박도 있어 1박 2일로 여행하기에도 좋다.

10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관광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 (www.seantou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달의 해양생물 - 해마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의 해양생물로 해마(*Hippocampus haema*)를 선정하였다.

해마는 실고기과에 속하는 어류로, 말과 닮은 특이한 생김새 때문에 해마라고 불리게 되었다. 우리나라 연안의 잘피 및 해조류 군락지에서 주로 서식하며, 작은 항구의 내벽에 붙어서 서식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해마(*Hippocampus haema*)는 전 세계의 다양한 해마류 중 한국과 일본에서만 발견되는 종으로, 국내에 서식하는 해마류 중 가장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종은 그간 일본에 서식하는 왕관해마(*Hippocampus coronatus*)와 같은 종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유전자 분석 등 추가 연구를 통해 2017년에 새로운 종으로 확인되었다.

해마는 세계적으로 약재, 관상용 등으로 쓰이면서 남획의 대상이 되었으며, 서식지 교란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II)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에 해마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해마를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마를 비롯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달의 등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항방파제등대



흑산도항방파제등대



신안 흑산홍어

해양수산부는 10월 이달의 등대로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흑산도항방파제등대’를 선정하였다.

1970년 5월에 첫 불을 밝힌 흑산도항방파제등대는 ‘천사의 섬’으로 알려진 신안군의 이미지를 살려 천사의 날개와 선박 형상이 어우러진 ‘천사의 등불’로 2013년 9월에 재탄생하였다.

인근에 위치한 상라산 봉수대에서는 흑산도의 대표 관광지인 12굽이길과 예리항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아침에는 출항하는 배길을 따라 비치는 윤슬*, 저녁에는 홍도·장도 쪽으로 지는 일몰을 볼 수 있다.

* (순우리말)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

흑산도 근해에서 잡히는 홍어가 한때 국내 홍어 어획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만큼 흑산도는 홍어의 본고장으로 꼽히며, ‘신안 흑산 홍어잡이’는 2021년 9월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연말에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 (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 관광정보는 신안군 문화관광 누리집 (tour.shinan.go.kr)에 소개되어 있다.

⑤ 이달의 해양유물 - 바르톨로메오의 해도첩



해양수산부는 10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1485~1486년에 제작된 최초의 인쇄본 해도첩 'Isolario*'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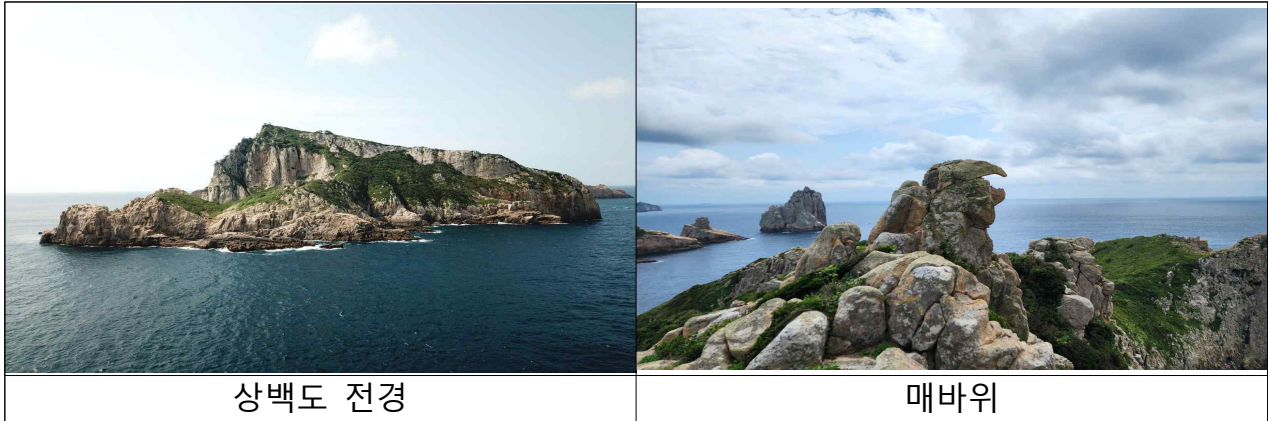
* 이탈리아어로 '섬의 책'이란 뜻

이 해도첩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본 해도첩이다. 이 해도첩은 제작자가 실제로 관측하여 만든 인쇄지도가 포함된 최초의 해도첩이라는 점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크다. 제작자 바르톨로메오는 15번 지중해를 항해하고 실제 관측한 자료로 이 해도첩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책은 총 49개의 예게해 해도로 구성되어 있다. 해도는 방위와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나침반, 눈금자와 함께 간략하면서도 장식적으로 그려졌다.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제작된 지도이기 때문에 해안선, 암초와 같은 항해에 필요한 지리적 정보도 담고 있으며, 내륙의 산맥, 마을, 수도원 등도 그려져 있어 해도를 보는 재미를 더한다. 해도 옆에는 섬들의 지리적, 역사적, 고고학적 설명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해도첩은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의 해양 역사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5232)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⑥ 이달의 무인도서 - 수호신이 사는 비경의 섬, '상백도'



해양수산부는 10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에 있는 '상백도'를 선정하였다.

상백도는 아래쪽에 위치한 하백도와 함께 '백도'라고 하는 군도(群島)에 포함된다. 흰빛 바위섬이 모여있는 백도는 '흰 백(白)'자를 붙여 '백도(白島)'라고도 쓰고, 주변 바위섬들이 대략 100개 정도라고 해서 '백도(百島)'라고도 쓴다.

고도 130m, 길이 약 440m, 면적 97,929m²의 상백도는 유인도인 거문도로부터 동쪽으로 약 28km 떨어진 곳에 있다. 상백도는 모두 20개의 섬으로 군도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 무인등대가 있는 가장 높은 섬이 주(主) 섬이다. 1938년에 만들어진 이 등대는 태양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해가 질 무렵 자동으로 켜져 바닷길을 안내하고 있다. 섬 중턱에는 거문도 어부를 구해준 매에 관한 전설 덕에 상백도의 상징이자 어부들의 수호신으로 통하는 매 형상의 바위가 우뚝 솟아있기도 하다.

상백도에는 희귀 식물인 초종용(草蓴蓉), 동백나무와 돈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천연기념물 215호로 지정된 흑비둘기 등 30여 종의 야생조류도 관찰된다. 연중 약 16℃의 수온이 유지되는 상백도 주변해역은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해양생태 전시관이자 생물종의 보고이기도 하다.

상백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인근 관광 정보는 여수관광문화(<https://www.yeosu.go.kr/tou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국일 (044-200-5013)
		담당자	사무관	나유성 (044-200-5017)
<수산물>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김윤이 (044-200-5447)
<어촌마을>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김정화 (044-200-5650)
		담당자	주무관	박윤범 (044-200-5652)
<해양생물>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최재용 (044-200-5315)
<등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870)
		담당자	사무관	조용훈 (044-200-5878)
<해양유물>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신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우민아 (044-200-5232)
<무인도서>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책임자	과 장	임채호 (044-200-5350)
		담당자	사무관	장민철 (044-200-5355)



10월
이달의 수산물

삼치

a spanish mackerel



삼치는 오메가-3 지방산(EPA, DHA)가 풍부하며 구이, 조림, 찜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출처 : 국립수산물과학원

수분	단백질	지방	회분
(Moisture)	(Protein)	(Fat)	(Ash)
73.9 g	19 g	2.7 g	3.8 g

에너지	칼슘	인	철
(kcal)	(Calcium)	(Phosphorus)	(Iron)
108 kcal	9 mg	293 mg	0.5 mg

레티놀	니아신	EPA	DHA
(Retinol)	(Niacin)	(eicosapentaenoic acid)	(Docosa Hexaenoic Acid)
9 µg	8.9 mg	424 µg	1,166 mg

20231001

10월
이달의 수산물

대하

a prawn



대하는 아르기닌과 베타인류가 풍부하며 구이, 튀김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출처 : 국립수산물연구원

수분	단백질	지방	회분
(Moisture)	(Protein)	(Fat)	(Ash)
80.0 g	18.1 g	0.6 g	1.2 g

에너지	칼슘	인	철
(kcal)	(Calcium)	(Phosphorus)	(Iron)
82 kcal	74 mg	210 mg	1.4 mg

타우린	아르기닌	셀레늄	베타인류
(Taurine)	(Arginine)	(Selenium)	(Betaine)
311 mg	2,897 mg	26 mg	878 mg

참고 2

최근 5년간 삼치, 대하 생산량 및 수출입량

□ 생산량

(단위 : 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삼치	32,089	37,841	32,949	30,950	35,654
대하	143	115	77	144	674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 2023.09.13기준

□ 수출·수입량

(단위 : kg)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삼치	수출	9,163,156	17,164,243	11,604,745	20,162,156	17,785,391
	수입	24,275	390,956	33,855	36,874	666,329
대하	수출	자료 없음				
	수입					

* 자료 : 수산물수출정보포털 / 2023.09. 13.기준

어식백세 · 이달의 수산물

10월

이달의 수산물

지금 먹어야 더 맛있는
싱싱한 제철 수산물

삼치와 대하



삼 치



부드러운 감칠맛이 일품인 삼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의
등푸른 생선 삼치!

대 하



가을에 더 맛있는 제철 대하!

식감이 쫄깃하고 달콤한 감칠맛이 일품인
영양가득 대하!

국민을 위해
전국행정

어식백세
100세



해양수산부

우리바다, 우리식탁 안전합니다



2023년 10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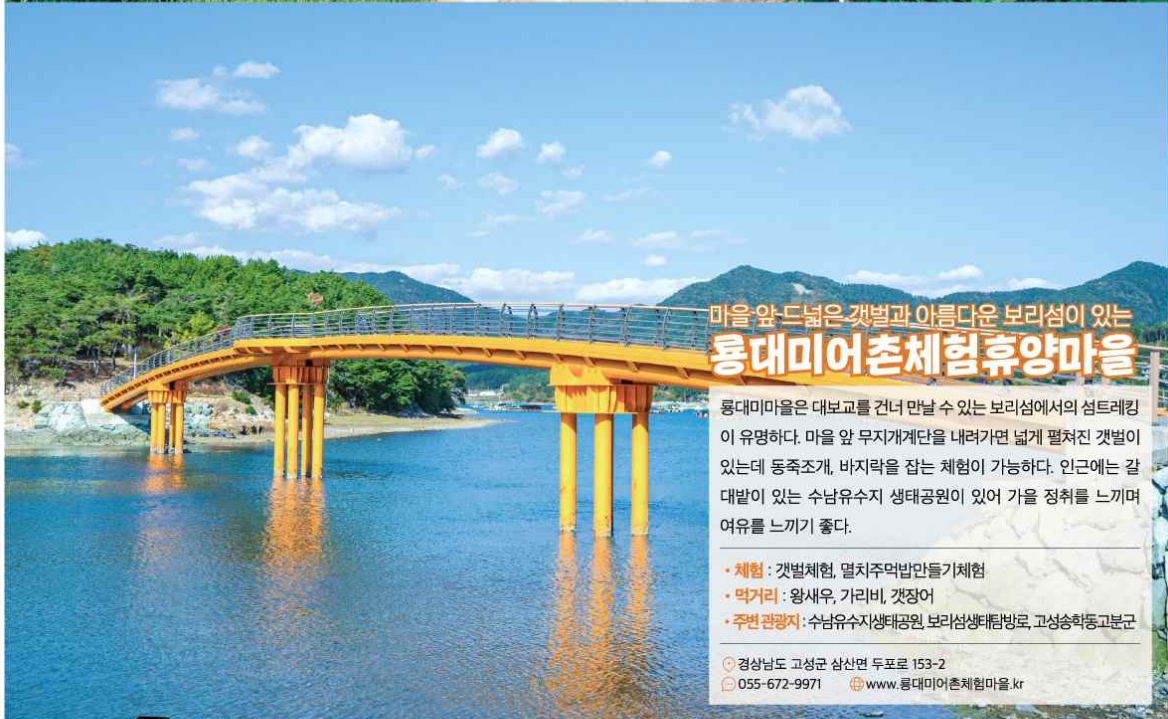
FIPA 한국어촌어항공단

바닷가를 산책하기 좋은 자은도의 어촌마을 둔장어촌체험휴양마을

둔장마을에서는 백합캐기체험과 후릿그물체험으로 백합, 동족, 보리새우 등 다양한 수산물을 직접 잡을 수 있다. 무인도를 연결하는 무한의 다리와 산책로, 그리고 공원이 있는 둔장해변에서는 노을을 감상하기에 좋다. 어촌계공동숙박도 있어, 체험과 함께 자연을 즐긴 후 마을에서 머물 수 있다.

- 체험 : 백합캐기체험, 후릿그물체험, 독살체험
- 먹거리 : 백합, 서대, 농어, 꽃게
- 주변 관광지 : 무한의 다리, 둔장해변, 할미섬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둔장길 47-47
☎ 010-9637-2234 🌐 www.둔장어촌체험마을.kr



마을 앞 드넓은 갯벌과 아름다운 보리섬이 있는 룡대미어촌체험휴양마을

룡대미마을은 대보교를 건너 만날 수 있는 보리섬에서의 섯트레킹이 유명하다. 마을 앞 무지개계단을 내려가면 넓게 펼쳐진 갯벌이 있는데 동족조개, 바지락을 잡는 체험이 가능하다. 인근에는 갈대밭이 있는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이 있어 가을 정취를 느끼며 여유를 느끼기 좋다.

- 체험 : 갯벌체험, 멸치주먹밥만들기체험
- 먹거리 : 왕새우, 가리비, 갯장어
- 주변 관광지 : 수남유수지생태공원, 보리섬생태방목로, 고성송학동고분군

◉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로 153-2
☎ 055-672-9971 🌐 www.룡대미어촌체험마을.kr

선착순
증정



이달의 어촌 여행지 방문하면
보냉백 굿즈를 드립니다



바다여행 누리집
www.seantour.kr





지켜주세요!! 이달의 해양생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꽃꽂이 서서 헤엄치는 바다 물

해마는 실고기과에 속하는 어류로 말과 닮은 특이한 생김새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해마(*Hippocampus haema*)는 전 세계의 다양한 해마류 중 한국과 일본에서만 발견되는 종으로, 국내에 서식하는 해마류 중 가장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간 일본에서 서식하는 왕관해마(*Hippocampus coronatus*)와 같은 종으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분석 등 추가 연구를 통해 2017년 새로운 종으로 확인되었다. 해마는 세계적으로 약재, 관상용 등으로 남획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서식지 교란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II)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해마를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분포 및 생태적 특성

우리나라 연안의 잘피 및 해조류가 있는 곳에 많이 분포하며, 소규모 항구의 내벽에 붙어서 서식하기도 한다.



Hippocampus haema

우리가
보호해야
할
**해
마**



해양수산부

KOEM
해양환경공단





흑산도항방파제등대

2023년 10월 이달의 등대로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위치한 '흑산도항방파제등대'가 선정되었다. 흑산도항방파제 등대는 매일 밤 4초마다 한 번씩 녹색 불빛을 반짝이며 흑산도항을 오가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진다. 흑산도항방파제등대는 흑산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추억과 낭만을 선물하는 관광명소 중 하나이다. 이 등대는 '천사의 섬'으로 알려진 신안군 이미지를 살려 천사의 날개와 선박 형상이 어우러진 '천사의 등불'로 2013년 9월에 재탄생 되었다. 일몰 무렵 노을빛으로 물드는 흑산도항을 따라 설치된 등대 조형물과 조명은 흑산도의 바다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흑산도는 산과 바다가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고 해서 흑산도(黑山島)라 일컬어졌다. 흑산도는 목포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87km 떨어져 있으며 홍도·다물도·대둔도·영산도 등과 함께 흑산군도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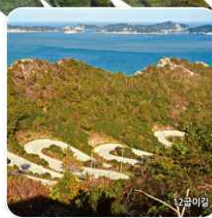
흑산도에서 꼭 방문해야 할 곳 중 하나는 성라산 봉수대이다. 성라봉으로 향하는 12굽이길과 예리함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으로 흑산도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다. 아침에는 출항하는 배길을 따라 비치는 윤슬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저녁에는 홍도, 장도 쪽으로 지는 일몰을 볼 수 있는 장소이다.



흑산도항방파제등대를 포함한 이달의 등대 정보는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에서, 인근 관광 정보는 신안군 문화관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변 관광지

- 흑산도 일주도로
-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 성라봉 전망대
- 신안철새전시관
- 유배문화공원
- 박득순미술관
- 장도습지
- 홍도
- 산들의 정원(진리당)
- 예리전망대



주변 먹거리

홍어는 '조선왕조실록'에 왕에게 진상한 귀한 식재료로 기록되어 있다. 흑산도 근해에서 잡히는 홍어가 한때 국내 홍어 어획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만큼 흑산도는 홍어의 본고장이다. 흑산 해역에서 전통어로 방식으로 행하는 '신안 흑산 홍어잡이'는 2021년 9월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바 있다. 유일하게 삭혀서 먹을 수 있는 생선인 홍어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제철이며 육질이 찰지고 부드러우며 고단백 저지방이 특징이다.



이달의 등대 이벤트

2023. 1. 1. ~ 12. 31.

1/ 블로그 포스팅 이벤트

포스팅하고 여행경비 지원받자!

- 이달의 등대 방문 후기 포스팅 중, 우수 포스팅을 선정하여 국내 등대 탐방 경비 지원(국민관광상품권 각 50만 원 상당, 5명 내외)

2/ 모바일 등대스탬프 투어 2023 시리즈 오픈!

스마트폰에 2023 시리즈 '이달의 등대'를 모아보세요!

- 스탬프 투어 12개소 완주자에게 등대 기념품 증정

※ 참여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등대와 바다 누리집 및 스탬프 투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 이달의 등대는 12월 31일 운영 종료됩니다. 이달의 등대는 당해 연도만 진행됩니다. 기한 내에 완주(기념품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배워요
이달의 해양유물

10 바르톨로메오의 해도첩



해양유물을
소개해 주세요
<https://www.inmm.or.kr>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리 해양 역사의 소중한 이야기와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양유물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기증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32



기증대상

해양사, 해양교류(해운·항만),
해양예술, 해양민속, 해양과학,
해양산업, 각종 어업·항해도구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자료



Sonetti, Bartolomeo dalli | 이탈리아 | 1485-1486년 | 23.0×16.4cm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해양수산부는 10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1485~1486년에 제작된 최초의 인쇄본 해도첩 “Isolario*”를 선정하였다.

이 해도첩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본 해도첩이다. 이 해도첩은 제작자가 실제 관측하여 만든 인쇄지도가 포함된 최초의 해도첩이라는 점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크다. 제작자 바르톨로메오는 15번 지중해를 항해하고 실제 관측한 자료로 이 해도첩을 만들었다.

이 책은 총 49개의 세계해 해도로 구성되어 있다. 해도는 방위와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나침반, 눈금자와 함께 간략하면서도 장식적으로 그려졌다.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제작한 지도이기 때문에 해안선, 암초와 같은 항해에 필요한 지리적 정보도 담고 있다. 내륙의 산맥, 마을, 수도원 등도 그려져 있어 해도를 보는 재미를 더한다. 해도 옆에는 세계해 섬들의 지리적, 역사적, 고고학적 설명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본 해도첩은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넓은 세상과 교류하기 위해 바다 위에 길을 만든 우리의 해양 역사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다양한 해양유물을 기증받는다.

*이탈리아어로 ‘섬의 책’이란 뜻

국립인천
해양박물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걸음은 국민의 나라

해양수산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영토의 시작,
생태와 경관의 보고

무인도서

2023년 10월
이달의 무인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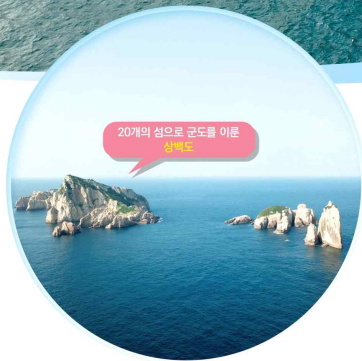


해수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수호신이 사는 비경의 섬

상백도



20개의 섬으로 군도를 이룬
상백도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 위치한 '상백도'를 10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하였다. 상백도는 아래쪽에 위치한 하백도와 함께 백도라고 하는 군도(群島)에 포함된다. 흰빛 바위섬이 모여 있는 백도는 한자로 흰 백(白)을 붙여 백도(白島)라고도 쓰고, 주변 바위섬들이 대략 100개 정도 된다고 해서 백도(百島)라고도 쓴다.

고도 130m, 길이 약 440m, 면적 97,929㎡의 상백도는 유인도인 거문도로부터 동쪽으로 약 28k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상백도는 모두 20개의 섬으로 군도를 이루고 있는데, 그중 무인도대가 있는 가장 높은 섬이 주(主) 섬이다. 1938년에 만들어진 이 등대는 태양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해가 질 무렵에 자동으로 켜져 이곳을 지나다니는 선박에게 바닷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섬 중턱에는 거문도 어부를 구해준 매에 관한 전설 덕에 상백도의 상징이자 어부들의 수호신으로 통하는 매 형상의 바위가 우뚝 솟아있기도 하다.

상백도에는 희귀 식물인 초종용(草從蓉), 무늬천남성을 비롯해 동백나무와 돈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 215호로 지정된 흑비둘기를 포함하여 가마우지, 바다적박구리, 팔색조 등 30여 종의 야생조류도 관찰된다. 연중 16℃ 선의 수온이 유지되는 상백도 주변 해역은 큰불은 산호, 꽃산호, 해면 등 170여 종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해양생태 전시관이자 생물종의 보고이기도 하다.

상백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에서, 인근 관광 정보는 여수관광문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 관광정보

www.mof.go.kr
blog.naver.com/koreamof
www.facebook.com/mofkor/photos



전라남도



여수시